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임정숙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과정)*

김성숙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영향요인인 셀프리더십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셀프리더십 전체와 더불어 하위요인인 행동지연 전략, 보상자연 전략 및 건설적 사고전략에 대해서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198명을 대상으로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번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는 بوت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행동지향적 전략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자연보상적 전략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건설적 사고전략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완전매개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여성 창업에 대한 발전적 제언을 하였다.

핵심주제어: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창업의도

1. 서론

오늘날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급변하는 경제상황으로 인한 경제위기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순히 고용되는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창업생태계에 ‘우머노믹스(womanomics)’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창업 기업의 증가는 여성들의 일자리에 따른 부가가치까지 창출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여성 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39%(약 143만개)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24%(약 410만명)를 책임지는 등 비중과 기여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고용인원은 약 396만명으로 전체 고용인원(1,678만명)의 23.6%를 여성기업에서 창출하고 있고 여성기업 일수록 여성을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18).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5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에서 32위로 낮은 편이며, 여성고용률도 남성보다 20.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2019).

국내의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경제활동 인구로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잠재된 경제가치 창출에 있어 창업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여성의 확대된 고용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새로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창업에 대한 인식개선에 따라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여성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며 새로운 창업에 있어서도 여성은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의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 셀프리더십은 주도적으로 직무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여성이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셀프리더십이 창업환경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와 목표, 방향을 제시하는 유리한 측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Neck et al., 2013; Zhao et al., 2010). 빠르게 변화하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창업환경에서 사업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

* 제1저자,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과정, limjs5450@hanmail.net

** 교신저자,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과정, kss9311@hanmail.net

투고일: 2020-09-11

수정일: 2020-10-13

계재확정일: 2020-10-21

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시된다. 또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잠재적 내적 요소인 자기효능감은 창업환경에 대한 대처나 활용에 있어 자신감이 있다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스스로 맡은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게 되며(Prussia et al., 1998; 강명숙·김정섭, 2014; 박연순, 2018),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므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Chen et al., 1998; McGee et al., 2009; 유봉호, 2014). 여성 창업에 있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며 움직이는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박연순, 2018; 조부경·서윤희, 2009), 높아진 자기효능감은 맡은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으므로(박연순, 2018)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관계성은 논리적 개연성으로는 충분하나 여성 창업이라는 한정된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을 실증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밝힐 경우 창업에 있어 여성 창업자가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는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을 높여 줌으로써 여성 창업자가 자신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우수한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 여성들의 기업활동과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창업의도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2. 여성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1. 여성의 행동지향적 전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2. 여성의 자연보상적 전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2-3. 여성의 건설적 사고 전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2.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은 1980년대 미국에서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Manz(1986)에 의해서 셀프리더십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

다. 현대 사회에서 셀프리더십은 조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증명되고 있으며 자기 영향 전략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Manz & Sims, 2001; 김해룡, 2008). 즉,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내재된 잠재적인 변인으로서 주도적으로 과업이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면서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Manz, 1986; 최은수 외, 2013)으로 또한,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신에 대한 지식과 동기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발휘해가는 과정(Neck et al., 1995)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사용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및 감정 등에 중점을 둔 광범위한 전략이며 자신을 지휘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게 하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양해균, 2020).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영향력이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로부터 발휘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창업가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으로서 기회의 포착과 창업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창업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D'Intino et al., 2007). 즉, 창업의 성공을 돕기 위한 도구로 창업 과정에서 셀프리더십은 연구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D'Intino et al., 2007).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창업가에게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셀프리더십 구성요인에는 크게 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설적사고전략의 3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셀프리더십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을 기반으로 한 행동중심전략은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자율규제(Self-regulation), 자기통제(Self-control) 및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가치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Manz(1986)는 셀프리더십의 개념을 행동적, 인지적 전략으로 이원화하여 연구하였으며, Manz & Neck(1999)은 인지적 전략을 건설적 사고 전략과 자연적 보상 전략으로 이원화하였다. 이후 셀프리더십은 행동 중심적 전략, 자연 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을 중심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

행동중심 전략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자신 스스로 행동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며, 자연보상적 전략은 과업 성취에 따른 보람과 즐거움 및 내재적 가치를 찾는 전략이며, 건설적 사고전략은 목표 성취에 알맞은 긍정적 사고패턴을 유지하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사고의 방향을 바꾸는 전략이다.

창업은 다양한 환경변수 가운데 어떤 과업보다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행동을 수정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이 의도했던 목표를 실행해야 하는 창업의도와외의 관계에서 셀프리더십은 선행되어야 할 변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내적 동기의 소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셀프리더십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iLiello & Houghton, 2006). 이와 관련하여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선행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나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강재학, 2016) 연구, 셀프리더십이 기업가가 기업환경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인식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보고한 연구(Neck et al., 2013),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미희, 2020; 김서영·김상순, 2017) 등이 있으며, 유봉호(2014)에 의하면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과 내재적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창업이 재미있고 도달할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환경이라도 셀프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창업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셀프리더십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에 몰입하고 조직에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 내어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고환상, 2011).

한편,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의 주요 영향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영향 관계를 다룬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연구(Neck & Mans, 1996; Prussia et al., 1998; 강효진, 2001; 김연선, 2008; 김희진, 2019; 박동수·이희영, 2002; 이윤신 외, 2014; 이정운 외, 2010; 조부경·서윤희, 2009),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효과의 밝힌 연구(김소령, 2006; 김진수, 2009; 정태희, 2005) 등이 있다. 이는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Neck & Mans, 1996; Prussia et al., 1998; 강명숙·김정섭, 2014; 김소령, 2006; 김진수, 2009; 정태희, 2005; 조부경·서윤희, 2009).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에 미치는 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 전략과 인지전략 모두 자기효능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신구범, 2010) 자존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목표 달성시의 느낌이나 업무 그 자체를 즐기며, 부정적 가정을 제거 및 변경하여 긍정적 사고패턴을 유발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선행연구들(Manz, 1986; Manz & Neck, 2004; 김희수 외, 2016)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은 창업이라는 과업을 성취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창업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서 Bandura(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주어진 과제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역량, 행동 등을 이행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즉,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과제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Shane et al., 2003; 최고은, 2020).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해

주요 선행변수 중 하나이며(Krueger & Brazeal, 1994) 특정 과제에 대한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는 명확한 예측변수로서,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자기효능감의 수준에 따라 더 뛰어난 성과와 그렇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변수이다(안승권, 2016). 즉,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상황에 성공적으로 과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동기적 신념이자 스스로에 대한 확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Gardner & Pierce, 1998).

창업에서 자기효능감은 궁극적으로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며(Bird, 1988; Chatterjee & Das, 2015; Krueger et al., 2000), 창업자가 기회를 포착하고 평가하여 창업의도를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aluku et al., 2016; Tsai et al., 2016).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창업가는 창업이라는 어려운 과업에 대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창업활동에 대한 노력과 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창업의도에 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도전적이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주어진 과업을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Wood & Bandura, 1989).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자신의 행동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반면, 약할수록 낮게 나타난다(Wood & Bandura, 1989).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도전의식이 강하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rueger et al., 2000).

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연구(서장훈, 2013; 엄의, 2013; 육창환·전인오, 2014; 채연희, 2016; 최옥희 외, 2017; 한수진, 2015),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또는 매개나 조절적 역할로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으로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Wilson et al., 2007; 정대용·채연희, 2016; 진주형·박병진, 2014). 이는 자기효능감이 창업행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황선구, 2016)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를 위해 수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일을 추구하며, 도전을 선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여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의 자기효능감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박시사·강성일(2007)은 자기효능감이 과업 의존적인 자신감을 의미하므로 창업의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Krueger & Brazeal(1994) 역시 잠재적인 기업가의 필요조건으로 자기효능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창업에 대한 높은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창업의도의 선행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3 창업의도

창업은 모든 경제발전 측면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으로(GEM, 2013)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Krueger et al., 2000) 창업의도는 창업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변인이라(Sheeran, 2002) 할 수 있다. Pruettt(2012)는 창업가가 자신의 커리어를 추구하기 위해 기업을 소유하려는 계획이 창업의도이며, 창업가의 필요나 가치, 또는 신념에 근거한 것이 창업의도이다(Karabulut, 2016). 창업의도는 실질적인 창업보다는 향후 창업할 가능성을 말하며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라고도 한다(김성순, 2010). 또한, 창업의도는 실제적인 창업으로 연결되는 추진력으로서(Wu & Wu, 2008),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 가는 과정으로 창업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Gartner et al., 1994; 김춘호, 2019; 문성식, 2018; 윤백중, 2012). 즉, 창업의도가 전제되지 않는 실질적인 창업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창업과정에 있어 다른 변인보다 중요하다(이신남, 2014)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창업가의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동이 실행하려면 창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창업의도가 선행되어야 한다(윤남수, 2012; 윤방섭, 2004; 최진숙·황금주, 2018)

여성의 창업의도에는 경제적 독립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석(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기업인의 창업동기나 성공요인, 성과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메타분석을 통해 여성 창업가의 창업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경제적 독립 의지, 자아실현 욕구, 재무 불안정에 대한 통제 및 미래에 대한 준비, 수익에 대한 욕구 등으로 제시하였다(이상석, 2006). 즉, 여성은 가족과 일에 대한 역할에 필요한 요구들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므로 창업을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할 수 있다(Goffee & Scase, 1985). 여성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서 개인의 성향과 비전 등을 들 수 있으며, 창업자의 창업의도 없이는 새로운 조직의 설립은 존재할 수 없고, 창업으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신생 조직의 초기 특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창업의도는 조직된 창업 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앞서 살펴본 관계들을 미루어볼 때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여성창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창업의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Neck & Mans, 1996; Neck & Houghton, 2006; Prussia et al., 1998; 강효진, 2001; 김연선, 2008; 김희진, 2019; 박동수·이희영, 2002; 이정운 외, 2010; 이윤신 외, 2014; 조부경·서윤희, 2009; 최고은, 2020),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에 있다는

연구(서정훈, 2013; 엄의, 2013; 육창환·전인오, 2014; 채연희, 2016; 최육희 외, 2017; 한수진, 2015),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를 높인다는 연구(강재학·하규수, 2016; 김미희, 2020; 김서영·김상순, 2017; 유봉호·김수현, 2015),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를 높인다는 연구(Diliello & Houghton, 2006; 채연희, 2016) 등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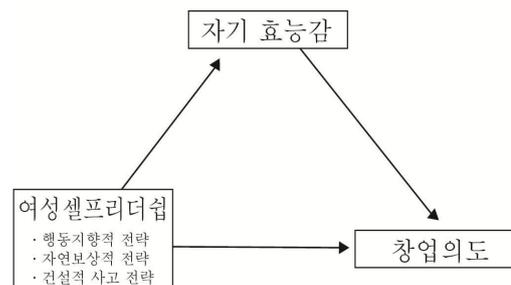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간 상호작용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또한 이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20년 6월 22일~8월 7일 사이에 전국에 걸쳐 온라인 설문을 통해 1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온라인 설문은 질문에 관한 응답이 누락없이 설문이 가능하기에 198명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총 198명의 대상자 중에서 연령대는 37세~53세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44.67(s.e. 4.31)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대졸이 83명(41.9%), 고졸 62명(31.3%), 대학졸업 41명(20.7%), 대학원졸업 12명(6.1%)로 나타났다. 가정형태는 기혼가정이 166명(8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12명(6.1%), 미혼 및 기타가정 20명(10.1%)로 나타났다. 창업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182명(91.9%)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으며 16명(8.1%)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144명(72.7%)이고 54명(27.3%)은 직업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먼저, 예측변수인 중년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준거변수인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여성의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인 행동지향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예측변인이 준거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측정도구

3.2.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된 셀프리더십은 Prussia et al.(1998)의 연구를 토대로 이정봉(2018)이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조직에서 구성원이 스스로 관리하고 변화와 성장을 위해 자신에게 동기부여 하는 행동과정(Houghton & Neck, 2002)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 3개의 하위요인인 행동지향적 전략 6문항, 자연보상적 전략 6문항, 건설적 사고 전략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에 대한 응답의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자료에서 신뢰도 값 Cronbach's α 는 행동지향적 전략 .827, 자연보상적 전략 .840, 건설적 사고 전략 .876으로 나타났고 셀프리더십 전체 신뢰도 값 Cronbach's α 는 .875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2.2 창업의도

창업의도는 자신의 사업을 소유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며 박상원(2016)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활용하였다.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기본 물음에 대한 응답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창업의지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자료에서 신뢰도 값 Cronbach's α 는 .916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2.3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효능감은 이지우(2000), 윤방섭(2004)과 김용식(2011)에서 사용된 문항을 김보경(2019)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구체인 목표를 성취하기 해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의 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의미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본 자료에서 신뢰도 값 Cronbach's α 는 .792로 나타내고 있다.

3.3 자료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첫째, 각 문항의 일관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 간의 관계와 회귀식에 투입될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년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번을 이용하

여 95.0% 신뢰구간으로 설정하여 Hayes(2018)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간접효과 검증은 بوت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한 후 신뢰구간 95.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VI. 결과

4.1 상관관계 및 주요 기술통계

본 연구의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연구 변인 간 상관관계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자료가 정상분포의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 값을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 범위가 .009~.581, 첨도의 절대값 범위가 .074~2.206으로 나타났다. Kline(2010)이 제시한 왜도의 절대값이 3, 첨도의 절대값이 8 또는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정규분포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셀프리더십을 기준으로 행동지향적 전략($r=.758, p<.001$), 자연보상적 전략($r=.850, p<.001$), 건설적 사고 전략($r=.776, p>.05$), 자기효능감($r=.498, p<.001$), 창업의도($r=.306, p<.001$)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의도를 준거변인으로 할 경우 셀프리더십 전체($r=.306, p<.001$), 행동지향적 전략($r=.282, p<.001$), 자연보상적 전략($r=.282, p<.001$), 자기효능감($r=.378, p<.001$)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적 사고 전략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가 모두 .50 이상 넘지 않으므로 다중공선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758~.850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회귀분석에서 이들은 함께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중공선성과는 상관이 없다.

<표 1>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A	A1	A2	A3	B	C
셀프리더십(A)	1					
행동지향적 전략(A1)	.758***	1				
자연보상적 전략(A2)	.850***	.479***	1			
건설적 사고 전략(A3)	.776***	.366***	.502***	1		
자기효능감(B)	.498***	.316***	.497***	.361***	1	
창업의도(C)	.306***	.282***	.310***	.131	.378***	1
평균(M)	3.82	3.92	3.68	3.86	3.56	2.83
표준편차(SD)	.025	.029	.034	.030	.037	.052
왜도(Skewness)	-.581	.009	-1.379	.223	.427	-.217
첨도(Kurtosis)	.481	-.451	2.206	1.347	.074	-.492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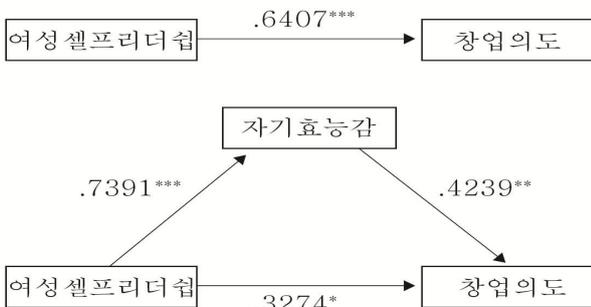
4.2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표 2>,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B=.7391, $p<.001$),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B=.4239, $p<.01$)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셀프리더십이 행동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B=.3274, $p<.05$)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자기효능감)						
상수	.7334	.3529	2.0779	.0390	.0373	1.4294
셀프리더십	.7391	.0920	8.0350	.0000	.5577	.9205
F=64.5616 p=.0000, R ² =.4978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창업의도)						
상수	.0713	.5327	.1339	.8936	-.9792	1.1219
셀프리더십	.3274	.1583	2.0674	.0400	.0151	.6396
자기효능감	.4239	.1066	3.9750	.0001	.2136	.6342
F=18.7817 p=.0000, R ² =.4019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총효과



<그림 2>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편, 매개효과에 대해 재검증과 더불어 효과분해를 위하여 부스트래핑을 활용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6407(.7831~.4983)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3274(.4857~.1691)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3133(.4128~.2138)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6407	.1424	.3598	.9215
직접효과	.3274	.1583	.0151	.6396
간접효과	.3133	.0995	.1399	.5306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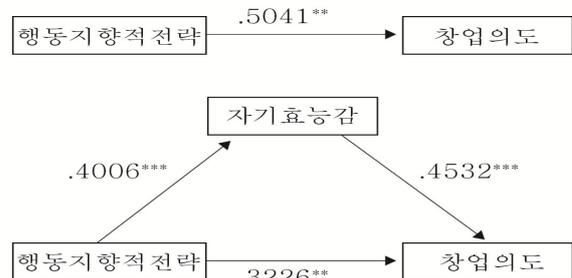
4.2.1 행동지향적 전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행동지향적 전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표 4>, <그림 3>에 제시하였다. 행동지향적 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B=.4006, $p<.001$),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B=.4532, $p<.01$) 자기효능감은 행동지향적 전략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행동지향적 전략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B=.3226, $p<.01$)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행동지향적 전략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 자기효능감)						
상수	1.985	.3389	5.8600	.0000	1.3174	2.6540
행동지향적 전략	.4006	.0859	4.6636	.0000	.2312	.5699
F=21.7488 p=.0000, R ² =.3160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 창업의도)						
상수	-.0479	.4981	-.0962	.9234	-1.0302	.9343
행동지향적 전략	.3226	.1227	2.6279	.0093	.0805	.5646
자기효능감	.4532	.0968	4.6795	.0000	.2622	.6442
F=120.3175 p=.0000, R ² =.4153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총효과



<그림 3> 행동지향적 전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편, 매개효과에 대해 재검증과 더불어 효과분해를 위하여 부스트래핑을 활용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5041(.6266~.3816)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3226(.4453~.1999)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1815(.2439~.1194)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행동지향적 전략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5041	.1225	.2625	.7457
직접효과	.3226	.1227	.0805	.5646
간접효과	.1815	.0621	.0699	.3120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4.2.2 자연보상적 전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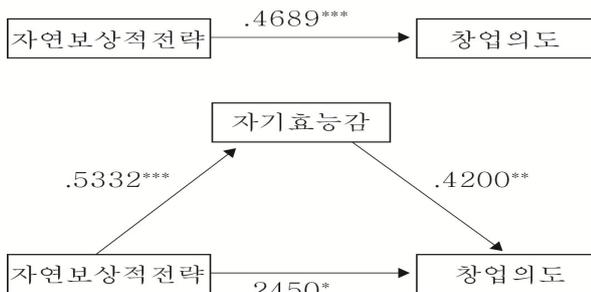
자연보상적 전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표 6>,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자연보상적 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B=.5332, $p<.001$),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B=.4200, $p<.01$) 자기효능감은 자연보상적 전략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자연보상적 전략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B=.2450, $p<.05$)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자연보상적 전략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자기효능감)						
상수	1.5961	.2465	6.4762	.0000	1.1101	2.0822
자연보상전략	.5332	.0664	8.0261	.0000	.4022	.6642
F=64.4178 $p=.0000$, $R^2=.4974$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창업의도)						
상수	.4349	.4050	1.0740	.2842	-.3637	1.2336
자연보상전략	.2450	.1142	2.1450	.0332	.0197	.4702
자기효능감	.4200	.1065	3.9427	.0001	.2099	.6301
F=18.9726 $p=.0000$, $R^2=.4036$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총효과



<그림 4> 자연보상전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편, 매개효과에 대해 재검증과 더불어 효과분해를 위하여 부스트래핑을 활용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4689(.5716~.3662)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2450(.3592~.1308)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2239(.2981~.1497)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연보상전략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4689	.1027	.2664	.6714
직접효과	.2450	.1142	.0197	.4702
간접효과	.2239	.0742	.0926	.3871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4.2.3 건설적 사고전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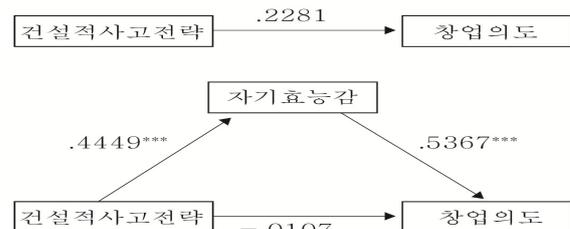
건설적 사고전략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결과는 <표 8>,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B=.4449, $p<.001$),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B=.5367, $p<.001$) 자기효능감은 건설적 사고전략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건설적 사고전략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건설적 사고전략과 창업의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변수	coeff	se	t	p	LLCI	ULCI
매개변수 모형(종속변수: 자기효능감)						
상수	1.8401	.3191	5.7673	.0000	1.2109	2.4693
건설적 사고전략	.4449	.0822	5.4143	.0000	.2829	.6070
F= 29.3147 $p=.0000$, $R^2=.3607$						
종속변수 모형(종속변수: 창업의도)						
상수	.9618	.4843	1.9862	.0484	.0068	1.9169
건설적 사고전략	-.0107	.1236	-.0863	.9313	-.2545	.2332
자기효능감	.5367	.1002	5.3545	.0000	.3390	.7344
F=16.2921 $p=.0000$, $R^2=.3784$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총효과



<그림 5> 건설적 사고전략과 창업의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편, 매개효과에 대해 재검증과 더불어 효과분해를 위하여 붓스트래핑을 활용한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붓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효과는 .2281(.3513~.1049)으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0107(.1129~- .1343)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2388(.3175 ~.1601)로 95% 신뢰구간에서 '0'이 존재하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건설적 사고전략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검증

변수	effect	se	boot LLCI	boot ULCI
총효과	.2281	.1232	-.0148	.4711
직접효과	-.0107	.1236	-.2545	.2332
간접효과	.2388	.0787	.1071	.4188
L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 ULCI: 95% 신뢰구간 내에서 상한값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새로운 환경에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선행연구를 통해 반영하여 자기 효능감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2020년 6월 22일~8월 7일 사이에 전국적인 온라인 설문문을 통해 198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Hayes(2018)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4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간접효과는 붓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셀프리더십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셀프리더십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붓스트래핑을 통해서 재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Neck & Mans, 1996; Prussia et al., 1998; 강효진, 2001; 김희진, 2019; 박동수·이희영, 2002; 김연선, 2008; 조부경·서윤희, 2009; 이정윤 외, 2010; 이윤신 외, 2014),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을 증가시켜 긍정적으로 향상된다는 연구(Neck & Mans, 1996; Prussia et al., 1998; 강명숙·김정섭, 2014; 김소영, 2006; 김진수, 2009; 조부경·서윤희, 2009; 정태희, 2005),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를 높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미희, 2020; 김서영·김상순, 2017; 유봉호, 2014), 자기효능감은 창업에 대한 예측변수라는 연구(Bird, 1988; Krueger et al., 2000; Chatterjee & Das, 2015; Krueger & Brazeal, 1994; 박시사·강성일, 2007), 창업의지에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Chen et al., 1998; McGee et al., 200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창업의도가 높다는 연구(엄의, 2013; 육창환·전인오, 2014; 채연희, 2016; 최윤희 외, 2017; 한수진, 2015),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또는 매개나 조절적 역할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Boyd & Vozikis, 1994; Krueger & Brazeal, 1994; Zhao et al., 2005; Wilson et al., 2007; 정대용·채연희, 2016; 진주형·박병진, 2014)의 주장과 일치 한다.

둘째, 여성의 행동지연 전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행동지연 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행동지연 전략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붓스트래핑을 통해서 재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동지연 전략이 자기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신구범, 2010)와 일치한다.

셋째, 여성의 보상지연 전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부분매개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보상지연 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보상지연 전략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을 붓스트래핑을 통해서 재검증을 한 결과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상지연 전략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anz, 1986; Manz & Neck, 2004; 김희수 외, 2016)와 일치한다.

넷째, 여성의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매개효과는 완전매개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자기효능감은 여성의 건설적 사고전략과 창업의도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적 사고전략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인의 하위요인인 건설적 사고전략은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선행연구들(Manz, 1986; Manz & Neck, 2004; 김희수 외, 2016), 자아효능감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Wilson et al., 2007; Zhao et al., 2005; 진주형·박병진, 2014; 채연희, 2016; 최윤희 외, 2017)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논리적으로 매개효과 구조를 가능하게 것 들이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았던 것들이며 더욱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리적 개연성이 있는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창업의도라는 변인 간 구조를 밝혔는데 의의와 더불어 이러한 구조에 결과를 여성 창업이라는 특수한 대상을 토대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다음과 실천적 제언을 한다. 첫째, 여성의 셀프리더십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활동을 수반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특정 과제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을 통해 셀프리더십을 경험하게 해야 한다. 둘째, 여성의 심리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인한 직무 단절으로 사회에 복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자원을 제공해 줌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일방향적인 자원제공에서 쌍방향적인 소통으로 전환함으로써 창업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과 관련하여 국가나 평생교육기관 과의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리더십을 함양시키고 자신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창업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여성 창업을 다루었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 할 수 있다. 둘째, 창업의도와 관련하여 주요요인이 되는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을 묶어 영향 경로를 파악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여성의 셀프리더십을 행동지연 전략, 보상지연 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등으로 세분하여 자기효능감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모두 검증되었다는 것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확률표집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후속 연구로는 확률표집을 하여 밝혀진 내용을 전체적으로 적용할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인과관계에서 영향요인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건설적 사고전략에 대해서 질적연구 방법으로 심도 깊게 밝힐 필요가 있다.

REFERENCE

강명숙·김정섭(2014). 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셀프 리더십 프로그램이 교사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교육학*, 33(1), 29-51.

강재학(2016).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획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강재학·하규수 (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획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0(4), 1-12.

강효진(2001). *셀프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고환상(2011). 상사의 리더십과 개인의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26(5), 347-377.

김미희(2020).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그릇, 시장개척성, 글로벌마인드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보경(2019). *창업가적 리더십과 개인적 특성이 사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관리행동의 매개 역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김서영·김상순(2017).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네트워킹행동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2(3), 57-81.

김성순(2010). *한국과 중국의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지에 관한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김소령(2006).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과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김연선(2008). *셀프리더십이 팀웍과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김용식(2011). *역정 직업군인의 내적 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 창업지원프로그램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김진수(2009). *직장인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김춘호(2019).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참여도와 기업가정신, 교내 창업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김해룡(2008). *소상공 예비창업자의 성격과 리더십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격 5요인이론과 셀프리더십이론의 탐색적 적용*. *대한경영학회지*, 21(6), 2393-2420.

김희수·김영국·한상현(2016).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FSC 항공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40(9), 169-186.

김희진(2019). *사회복지사의 셀프리더십이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한대학교.

문성식(2018). *기업가정신과 사회적자본이 시니어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박동수·이희영(2002). 자기유능감과 직무성공간의 관계에 대한 셀프리더십의 매개작용. *인사조직연구*, 10(1), 135-159.

박상원(2016). *노인의 성격특성이 삶의 만족도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지*, 31(2), 187-204.

박연순(2018). *여성창업자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서정훈(2013).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신구범(2010). *서비스기업 종업원의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 및 직무성공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17(1), 91-104.

안승권(2016). *창업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자기효능감 및 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양해균(2020). *예비장교의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엄의(2013). *창업가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유봉호(2014). *셀프리더십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15(3), 1382-1389.

유봉호·김수현(2015). *청년창업자의 셀프리더십이 창업성공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8(4), 1087-1103.

육창환·전인오(2014). *창업가의 특성요인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국내 창업 멘토링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661-676.

윤남수(2012). *잠재적 창업자의 창업동기 요인이 기업가 정신 및*

-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기업가 정신의 매개효과. *산업경제 연구*, 25(2), 1537-1557.
- 윤방섭(2004). 창업 의지의 결정요인: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 경영연구*, 17(2), 89-110.
- 윤백중(201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동기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 이상석(2006). 여성기업의 창업동기, 성공요인, 성과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28(4), 45-64.
- 이신남(2014).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회계교육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회계학회지*, 19(3), 171-190.
- 이운신·박성희·김중경(2014). 간호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자기효능감, 대인관계, 대학생활 만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6), 229-240.
- 이정봉(2018). *셀프리더십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상호호혜성의 매개효과 및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 이정윤·강은주·한주희(2010). 셀프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및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11(11), 4273-4281.
- 이지우(2000). 개인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 *중소기업연구*, 22(1), 121-146.
- 정대용·채연희(2016).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 85-110.
- 정태희(2005). 셀프 리더십 교육이 대학생의 셀프 리더십과 자존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KEDI] 한국교육*, 32(1), 223-248.
- 조부경·서윤희(2009). 유치원 교사의 자기지도성과 교사 자아개념 및 조직 풍토와의 관계. *교원교육*, 25(1), 71-91.
- 중소벤처기업부(2018).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18. 5. 11)*.
- 중소벤처기업부(2019). *더 많은 여성창업과 더 강한 여성기업을 위한 지원 확대 보도자료(2019. 7. 9)*.
- 진주형·박병진(2014). 역할모델 노출이 청년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태도, 주관적 규범,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4), 101-123.
-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와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최고은(2020). 성인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 최옥희·박종희·김남현(2017). 대학생의 창업교육이 창업성향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1(1), 35-50.
- 최은수·권기술·진규동·손관규·김민서·신승원·박시남(2013). *뉴리더십 가이드*. 서울: 학지사.
- 최진숙·황금주(2018). 예비 창업가의 긍정심리자본과 커리어 야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지식경영연구*, 19(3), 135-171.
- 한수진(2015).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주관적 규범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선구(2016). *중장년 직장인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Baluku, M. M., Kikooma, J. F., & Kibanja, G. M.(2016). Psychological capital and the startup capital: entrepreneurial success relationship.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28(1), 27-54.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J(3), 442-453.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63-77.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atterjee, N., & Das, N.(2015). Key psychological factors as predictors of entrepreneurial success: A conceptual framework. *Academy of Entrepreneurship Journal*, 21(1), 102-114.
- Chen, C. C., Greeneb, P. G., & Crickc,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D'Intino, R. S., Goldsby, M. G., Houghton, J. D., & Neck, C. P.(2007). Self-leadership: A process for entrepreneurial success.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13(4), 105-120.
- DiLiello, T. C., & Houghton, J. D.(2006).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Toward a model of self-leadership, inno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19-337.
- Gardner, D. G., & Pierce, J. L.(1998).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in the organizational context an empirical examination.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23(1), 48-70.
- Gartner, W. B., Shaver, K. G., Gatewood, E., & Katz, J. A. (1994). Finding the entrepreneur i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5-9.
- GEM(2013).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port*.
- Goffee, R., & Scase, R.(1985). *Women in Charge: The Experiences of Female Entrepreneur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Hayes, A. F.(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 Houghton, J. D., & Neck, C. P.(2002).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7(8), 672-691.
- Karabulut, A. T.(2016). Personality trai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229), 12-21.
- Kline, R. B.(2004).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Guilford publications.
-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Krueger, N. F., & Braseal, D. V.(199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91-104.
- Manz, C.(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3), 585-600.
- Manz, C. C., & Neck, C. P.(1999).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2nd ed.* NJ : Prentice-Hall.
- Manz, C. C., & Sims, H. P.(2001).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keley, CA: Berett-Koehle.
- Manz, C. C., & Neck, C. P. (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 (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Neck, C. P., & Houghton, J. D.(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Past developments, present trends, and future possibilities.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Neck, C. P., & Manz, C. C.(1996). Thought self-leadership: The impact of mental strategies training on employee cognition, behavior, and affec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5), 445-467.
- Neck, C. P., Houghton, J. D., Sardeshmukh, S. R., Goldsby, M., & Godwin, J. L.(2013). Self-leadership: A cognitive resource for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6(5), 463-480.
- Neck, C. P., Stewart, G. L., & Manz, C. C.(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 Pruett, M.(2012). Entrepreneurship education: Workshop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87(2), 94-101.
- Prussia, G. E., Anderson, J. S., & Manz, C. C.(1998). Self 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edi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19(5), 523-538.
- Shane, S., Locke, E. A., & Collins, C. J.(2003). Entrepreneurial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2), 257-279.
- Sheeran, P.(2002). Intention-behavior relations: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2(1), 1-36.
- Tsai, K. H., Chang, H. C., & Peng, C. Y.(2016). Extending the link betwee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intentio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2), 445-463.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Wood, R., & Bandura, A.(1989).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 Behavior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2(3), 472-485.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752-774.
- Zhao, H., Seibert, S. E., & Hills, G.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1272.
- Zhao, H., Seibert, S. E., & Lumpkin, G. T.(2010).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performa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management*, 36(2), 381-404.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the Intention of Start-up in Women: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Lim, Jeong Sook*

Kim, Sung Soo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omen's self-preservation on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by using self-efficacy as a mediation,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women's self-preservation to adapt to the new environment of start-up.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the overall self-preservation, the sub-factors of behavioral delay, compensatory natural strategy, and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were also validated. As a research method, 198 people who responded to the online survey were analyzed using Model 4 of the PROCESS macro proposed by Hayes(2018), and indirect effects were analyzed by designating 5,000 bootstrapping sampl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self-efficacy has been shown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which women's self-preservation influences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t this time, the medium effect was shown as a partial medium. Second, the sense of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women's behavior-oriented strategies affecting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t this time, the medium effect was shown as a partial medium. Third,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which women's natural compensatory strategies affect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t this time, the medium effect was shown as a partial medium. Fourth,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which women's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ies affect their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t this time, the medium effect was shown as a complete medium. This shows that the higher a woman's self-preservation, the higher her self-efficacy and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he made a developed proposal for women's start-ups.

Keywords: self-leadership, Self-Efficacy, willingness to start a business

* First Author, Doctoral course, Seoul Hanyoung University, limjs5450@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course, Seoul Hanyoung University, kss9311@hanmail.net